

고양이 탐정단

전여지

햇살초등학교 뒷산, 낡은 창고에는 ‘고양이 탐정 사무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곳엔 코점이, 콧물이, 나비가 살고 있었죠. 코점은 매사에 푹 부러지고 코에 검은 고양이 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콧물은 큰 덩치에 손아귀 힘이 셉지만, 늘 콧물을 흘려서 맹구처럼 보였어요. 나비는 몸이 얇고 길어서 나비처럼 날아오르기를 잘했어요.

이들은 햇살초등학교 친구들의 핸드폰을 찾아 주거나, 풍선을 잡아 주고, 집을 데려다주는 등 어른들 모르게 일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친구들은 삼총사에게 고마워하면서 ‘고양이 탐정단’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고양이 탐정단은 일을 해결하고 나서 보상을 받았는데, 주로 맛있는 먹거리였지요. 다른 고양이들은 길에서 먹이를 찾는 시간이 많았지만, 고양이 탐정단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느지막한 오후엔 여유롭게 윤기 나는 털을 뽐내곤 했죠. 다른 고양이들이 한창 배고플 시간에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모든 고양이가 탐정단을 선망했어요. 언제나 탐정단에 들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았지요. 하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삼총사는 한결같이 “우리면 충분해.”라는 말을 끝으로 사무소 문을 닫곤 했거든요.

오늘도 삼총사는 사무소에서 느긋하게 있었어요. 더우나 추우나 사무소 안은 안락했지요. 코점이는 작은 혀로 물을 짝어 마셨어요. 작은 물방울이 코점이의 검은 고양이 무늬에 튀었지요. 반쯤 뜬 눈에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콧물이는 뒹굴뒹굴 누워 있었어요. 등을 바닥에 문질러도 여전히 털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다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했는데 바닥에 콧물이 묻어도 콧물이는 행복했습니다. 나비는 눈곱을 떼고 있었죠. 조그마한 손으로 눈 주변을 비볐어요. 일정한 박자로 세수했지요. 어딘지 춤추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세 고양이 모두 나름의 일상을 즐기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사무소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배를 굶지 않는다는 탐정단인가요? 저도 탐정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큰 목소리는 들렸지만, 삼총사는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 뒤에 작은 고양이 실루엣이 보였어요. 작은 고양이는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답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세 고양이끼리 사람들의 일을 해결해 준다면서요? 그걸로 맛있는 통조림도 먹고 간식도 먹는다면서요! 저도 먹고 싶어요!”

코점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 주변을 살펴봤어요. 자그마한 치즈색 고양이가 사무소 문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였죠.

“너는 누구야? 미안하지만 우리 우리로 충분해.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 그만 내려와 줄래?”

코점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옆 동네 사는 고양이인데요. 엄마한테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알아서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이곳에 먹을 게 많다고 해서요! 제 동네에는 다른 어른 고양이들이 많아서 먹을 게 없어요!”

치즈색 고양이는 여전히 문고리를 두 팔로 잡고 있었죠.

“큘, 우린 충분해. 다른 곳 알아봐, 쿵.”

콧물이가 사무소 안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치즈색 고양이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잠시, 저 멀리서 어떤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쪽을 향해서였죠.

“고양이 탐정님들! 제 숙제를 찾아 주세요!”

아이는 사무실 문을 허겁지겁 열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숙제를 다 못 끝냈는데 선생님께 내 버렸어요. 지금 빨리 다시 찾으시면 마저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 저는 교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다음 달까지 닭고기 캔을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코점이, 콧물이, 나비는 ‘닭고기’라는 소리에 눈이 커졌어요. 아, 치즈색 고양이도요! 눈을 크게 뜨며 콧김을 마구 뿜어냈지요. 닭고기 캔은 모든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삼총사는 서로 눈빛 교환을 짧게 한 뒤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앞장섰어요. 코점이, 콧물이, 나비가

나란히 길을 나서려 하자 치즈색 고양이가 앞을 막아섰어요.

“저도 갈래요! 저도! 저 달리기 엄청 잘해요! 저도 같이 가요!”

하지만 나비는 단호한 얼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달리기는 우리도 잘해. 냐양.”

셋은 멀찍이 먼저 달려갔어요. 치즈색 고양이는 주눅이 들기는커녕 더 불타올랐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탐정단에 들고 말겠다고요! 몰래몰래 셋을 쫓았죠.

교무실 뒤쪽, 삼총사는 머리를 맞대며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돌아오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치즈색 고양이는 어느새 삼총사를 지켜보고 있었죠.

“잘 들어, 지금 시각은 1시 55분. 선생님들은 5분 뒤에 교무실로 들어오실 거야. 우리는 5분 안에 교무실을 들어가, 의뢰인의 숙제를 들고 온다. 의뢰인은 2학년 3반 13번이야. 자, 들어가자!”

코점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삼총사는 일제히 교무실 뒤쪽 창문의 난간으로 점프했어요. 창문은 손잡이를 들어서 여는 구조였는데, 꽤 무거워 보이는 손잡이었죠.

“큘,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 다들 몸 구부릴 준비나 하라고! 쿵.”

콧물이가 두 손을 비비면서 코점이와 나비에게 말했어요. 콧물이는 곰 발바닥만 한 손으로 창문 손잡이를 받쳤어요. 양손은 손잡이에, 양발은 난간에 대고는 순간적으로 힘을 주었죠.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큘... 끄... 쿵..... 끄.....”

콧물이는 콧물을 마시다가도 힘을 주면서 창문을 아주 조금씩 열

있어요. 네 번의 시도 끝에 머리 정도는 구겨 넣을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어요. 삼총사는 물결치듯 몸을 구부려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콧물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경계했지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했어요. 콧물이가 고개를 돌려 교무실을 쳐다본 그 순간, 치즈색 고양이가 어디선가 튀어 올랐어요. 삼총사가 말릴 새도 없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 버렸지 뭐예요?

“쿵, 쿵! 애들아! 쿵! 여기 좀 봐! 쿵, 쿵……!”

콧물이는 평소와 달리 자꾸자꾸 코를 들이키고 기침을 했어요. 코점이와 나비는 동시에 동공이 커져 버렸어요.

“히익, 저 자식 언제 들어왔어? 이건 내 계산엔 없었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다. 냐앙. 일단 받아들이자. 거기 꼬마. 의뢰인은 2학년 3반 13번이고 숙제를 찾아야 한다. 냐앙. 어서 찾아. 냐앙.”

코점이가 당황하는 반면, 나비는 태평한 목소리로 치즈색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임무 접수!”

코점이와 콧물이는 어안이 빙빙했지만, 치즈색 고양이에게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같이 찾는 수밖에요. 치즈색 고양이는 우렁차게 말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실 처음 보는 풍경에 긴장한 상태였지요. 이렇게 높고 딱딱하고 뾰족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치즈색 고양이는 엄마의 말을 떠올렸어요. 대대로 치즈색 고양이들은 가장 용맹하고 거침이 없었다는 것어요. 걱정하는 것보단 가장 익숙한 곳부터 살펴보자고 다짐했죠.

한편 삼총사는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의 책상을 먼저 찾기로 했어요.

“우리가 목표 인간에 대해 아는 정보는 수업이 5교시에 끝났다. 정도밖에 없다. 나아앙.”

나비가 짧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 하나 더 있지. 오늘, 반 학생들의 숙제를 모-두 받았다는 점! 오늘 숙제를 받았으니까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의 책상에는 학생들의 공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야! 인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거든.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걸?”

코점이는 창문틀에서 눈을 슬며시 뜨며 책상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러나 교무실의 모든 책상이 학생들의 공책으로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죠. 그중 어느 공책이 의뢰인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코점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바로 눈을 똑바로 떴어요. 잠자코 집중했죠. 그러다 문득 코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얘들아, 저쪽 책상에서 의뢰인한테 났던 냄새가 나. 우리가 평소에 맡지 못했던 냄새라 기억해. 바깥에서 맡을 수 있는 향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교실에 있었던 의뢰인의 냄새는 저 책상의 주인에게서 난 냄새 아닐까? 그 사람이 바로 담임 선생님일 거야!”

“큘, 올라갈게! 큘.”

“올라가 보자구, 나아앙!”

코점이와 콧물이, 나비는 동시에 그 책상에 올라갔어요.

선생님의 책상을 훑어보려는 찰나,

부시럭부시럭. 부시럭부시럭 사부작사부작. 통...통.....

부시럭부시럭부시럭 사부작사부작 통...통.....통...

팻팻팻팻 팻팻팻팻 퍽 쨍그랑!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삼총사는 모두 책상에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난 걸까요? 셋은 털이 오소소 솟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치즈색 고양이와 온갖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쓰레기를 뒤지기만 하고 제대로 치워 놓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멍쳐진 휴지며, 종이 멍치며, 음료수 뚜껑까지 교무실 바닥에 어질러져 있었죠. 순식간에 교무실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방금 화분이 깨졌으니 흙도 추가되었어요. 치즈색 고양이는 놀라서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코점이는 머릿속이 초비상 사태였어요. 흔적도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탐정의 첫 번째 법칙이거늘! 조용히 혼자 사고를 치고 있었다니요! 코점이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어요. 어떤 상황이든 똑똑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코점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선생님들이 곧 오실 텐데, 어떡하죠?

콧물이라도 머릿속은 비상 상태였어요. 그동안 이런 일은 없었는데. 당장 여기서 뛰쳐나가야 하나 고민했죠. 혼자 도망가도 괜찮을까? 다 같이 끌고 도망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서 나가면 치즈 자식부터 쫓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콧물에게 탐정 법칙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빨리 튀어라였거든요.

하지만 나비는 가만히 높은 책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행동을 상상하고 있었죠. 만약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남몰래 숨겨 두었다면, 가장 높은 곳에 두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나비가 사무소 앞 높은 나무에 간식 몇 개를 숨겨 놓은 것처럼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곳에 보관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비는 학생들의 숙제가 선생님에게 있어 소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비는 책장에 가까이 가서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었어요. 간식을 사냥하듯 눈에 책장 맨 위 칸을 고정했어요. 몸을 바닥에 밀착하여 허리를 낮춘 다음, ‘냥’ 소리와 함께 책상보다 훨씬 높은 책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누군가 흥얼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비까지 초비상 상태에 접어들었죠. 책장에 뒀 다음 숙제를 꺼낼 생각밖에 없었는데, 변수가 생겨 버린 거예요. 삼총사는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순간적으로 치즈색 고양이가 교무실 문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치즈색 고양이는 이번엔야말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 주려 했어요.

선생님은 파란 양말을 신고 빨간 안경을 쓰고 교무실로 오고 있었어요. 치즈색 고양이는 빠르게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곤 선생님의 셔츠 단추를 타고 올라가 빨간 안경을 물었어요. 순식간에 내려가 마구 달렸죠.

“탐정님들! 제가, 제가 안경을 뺐었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치즈색 고양이는 교무실 문틈 사이로 삼총사에게 소리쳤어요.

나비는 그 광경을 보고 중심을 잃어 수많은 공책과 함께 바닥으로 뛰어내렸고, 공책들은 날개처럼 양쪽으로 종이를 펼쳤지요.

담임 선생님은 공책 더미들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고, 치즈색 고양이는 선생님보다 더더 빠르게 경중경중 뛰었어요.

그런데 맵소사! 치즈색 고양이가 뿔 방향은 교실이 모인 복도였어요. 마침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죠. 학생이며 선생님이며 모두 나와 치즈색 고양이와 파란 양말 선생님을 쳐다봤죠. 흥미진진한 레이스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파란 양말 선생님은 “저 고양이 잡아.”라고 소리쳤어요.

하나, 둘씩 치즈색 고양이를 쫓았어요. 파란 양말 선생님 뒤로 초록 양말 선생님, 하얀 양말 선생님, 노란 양말 선생님까지 줄줄이 이어졌지요. 복도에는 한바탕 꼬리잡기 게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치즈색 고양이를 따라갈 수도, 잡을 수도 없었죠. 엄청 빨랐거든요!

줄줄이 세 바퀴를 돌 때쯤, 누구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다들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느라 앉아 있었죠. 치즈색 고양이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천천히 화장실 입구 근처에 빨간 안경을 두었어요. 여유롭게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교무실 뒤쪽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선 막 의뢰인의 숙제를 찾은 삼총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코점이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빨리 다시 나가야 해. 숙제 찾았어! 의뢰인한테 가자!”

삼총사와 치즈색 고양이는 나란히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넷은 지치는 기색도 없이 뛰었죠. 아이는 탐정 사무소의 문 앞에서 고

양이 탐정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숙제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오늘 저녁부터 닭고기 캔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지요. 아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넷은 벌써 침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맛있는 닭고기가 아른거렸죠.

넷은 피로한 몸으로 바닥에 있었어요. 코점이는 팔을 시원하게 뻗고 검은 고양이 무늬 주변으로 혀를 날름거렸어요. 콧물이는 허리를 등글게 말고, 바닥에 붙은 콧물처럼 납작하게 엎드렸죠. 나비는 나비 같은 몸짓으로 나무에 있던 간식을 꺼냈어요. 평소라면 다들 한 입씩 먹었을 테지만, 기력이 없어 편히 누워 있었죠. 치즈색 고양이는 물을 급하게 마시고 있었어요. 눈을 꼭 감은 채로요.

“근데… 너 이름이 뭐냐. 냐양?”

나비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저는 이름이 없는데요? 다들 야옹이, 고양이, 치즈라고 불러요!”

치즈색 고양이가 답했어요.

“음… 그럼 넌 경중이라고 하자. 경중경중 잘 뛰니까. 어때?”

코점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치즈색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동안 이름이 없던 치즈색 고양이는 경중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당장이라도 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코점이의 얘기를 들은 콧물이가 웃으며 말했지요.

“큘. 좋다. 크크크, 경중이라니. 아주 이상하고 재밌어. 쿵.”

“혹시 저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아! 고마워요!”

경중이는 처음 왔을 때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경중이는 나중에 만날 엄마에게 벌써부터 소식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실은 그동안 다른 고양이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싶지 않았어. 여긴 소문과는 달라. 음식이 풍족하다곤 하지만 셋이서 나눠 먹기엔 부족하거든. 그래서 새 탐정단원을 거절한 거야.”

코점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치만 너에겐 우정이 생겨 버렸어. 너와 있을 시간이 기대돼. 앞으로로도 계속 같이 다니자.”

이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고양이 탐정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경중이는 새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지요. 코점이, 콧물이, 나비, 그리고 경중이는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다들 웃고 있었답니다.